

7년 만에 부활한 2019 대학가요제 “철학·시대정신 담은 음악 기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학가요제' 기자회견. /연합뉴스

10월 5일 경기도 일산에서 가요 경연 세대공감 축제로 심사위원 김학래·우순실 등 MC는 예은·이창민이 맡아



김학래 심사위원 (33)이 프로듀싱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창민은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군대나 가라고 해서 못 나갔다고 너스레를 떨며 "전설의 선배님들의 무대를 위한 음악 프로듀싱을 맡아 긴장된다. 선배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7년 만에 부활한 대학가요제가 새로운 형태의 가요 경연 축제로 열린다. "2019 대학가요제"는 대학생들에게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중년을 대상으로는 추억을 소환해 여러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로 꾸민다. 본선은 10월 5일 오후 7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펼쳐진다. 심사위원인 김학래(62)는 26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가요제가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은 비결은 기존 가요와 많이 차별화한 신선하고 새로운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97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노래 '내가'로 대상을 받은 그는 참가곡 장르에 대

해서 "컴퓨터 음악이 됐든 라이브 연주가 됐든 현재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이 담긴 음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가요제 심사는 김학래 외에도 이재성, 우순실, 높은음자리 김장수, 원미연, 이정석, 조갑경, 작곡가, 전유나 등이 맡는다. 대학가요제 본선 전날인 10월 4일 전야제 축제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옛 추억의 노래로 무대를 펼친다. 전야제 무대 전곡은 이번 가요제 진행을 맡은 그룹 2AM 출신 이창민

정우성·곽도원·유연석, 영화 '정상회담'서 뭉친다

'변호인' 양우석 감독 작품

정우성·곽도원·유연석이 영화 '정상회담'에 출연한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정상회담' 캐스팅을 마치고 27일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변호인' '강철비' (2017)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으로, 당초 '강철비2'라는 가제로 알려졌으나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강철비'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닥치는 상황을 다뤘다면,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전쟁 위기가 닥치는 상황으로 세계관을 확장했다. 가까운 미래,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남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잠수함에 납치·감금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전작에서 북한 전직 특수요원 역을 맡



유연석(왼쪽부터), 곽도원, 정우성, 양우석 감독.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았던 정우성과 북한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연기했던 곽도원이 '정상회담'에서는 '소속'을 바꾼다. 정우성은 냉철한 이상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남한 대통령을 연기하고, 곽도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북한 강경파 호위총장 역으로 출연한다. 유연석은 북한 지도자 역으로 합류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위기 속에서 세 사람의 날카로운 대립과 막후 공동전선을 그린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부인을 행복하게 하라" 남편들의 뜨거운 요리대결

올리브 채널 '극한식탁' 내일 밤 첫 방송

남편들이 각자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일대일 '주방 배틀'을 펼친다. 이달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방송하는 올리브 채널의 새 예능 '극한식탁'은 매회 두 쌍의 부부가 출연한다. 이들 중 남편 2명이 제한 시간 내 미션으로 주어진 음식을 완성하는 요리 대결을 벌인다. 남편들은 결혼 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첫 데이트 때 먹었던 음식 등을 요리할 예정이다. 남편들의 요리쇼를 중계할 MC 군단으로는 방송인 송은이, 김신영, 문세윤, 광희와 최현석 셰프가 출연한다. 1회 게스트로는 고태용과 조태란이 등장해 아내를 위한 요리사로 변신한다. 최현석 셰프 27일 마포구 삼양동 스탠드포드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대결해보고 싶은 상태로 샘김 셰프를 지목했다. 그는 샘김을 향해 "집에서 한 요리사를 SNS에 올려서 많은 유부남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농담을 한 뒤 "누가 아내를 위해 더 사랑스러운 요리를 해줄 수 있는지 대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외 출연자들은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로 하하-별, 위샤오광(于曉光)-추지현, 최민수-강주은 부부 등을 꼽았다. 연출을 맡은 정종선 PD는 "요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행복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아내

를 위해 요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극한식탁 출연진.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방학특집 안녕 자두야 언더 더 씨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동물의 건축물 플러스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기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버 50 빠샤 메카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썬!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습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썬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그림을 그려요(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스파이더맨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55 EBS 초대석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물랑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45 페파 피그	14:55 꼬마버스 타요(재)	<낮선 매력 코카서스 -여름 천가 아레르바이잔>
08:00 덩동댕 유치원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그 여름의 끝에 섬 3부>
08:30 띠띠뽀 띠띠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2:45 극한직업
09:00 출동! 슈퍼윙스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3:55 EBS 초대석
09:30 원더볼즈	16:25 마샤와 곰(재)	24:25 고양이들 부탁해(재)
10:00 고양이들 부탁해	16:40 덩동댕 유치원(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음 7월 28일 丁酉)

<p>子 36년생 응운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48년생 기조는 유사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60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진다. 72년생 마음먹은 바가 그대로 형상화 될 수 있다. 84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39</p>	<p>午 42년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필요가 있다. 54년생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66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78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9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54</p>
<p>丑 37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49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61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73년생 무리 없이 대응하자. 85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행운의 숫자 : 25, 29</p>	<p>未 43년생 융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55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지는 박하겠다. 67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79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91년생 기조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75</p>
<p>寅 38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50년생 미진한 가운데에서 버티느라고 고생이 많겠다. 62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자이다. 7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86년생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9, 36</p>	<p>申 44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시의적절 하리라. 56년생 높이만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68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80년생 진중할 태도로써 조지일만 한다면 성사 되리라. 92년생 너무 민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48, 02</p>
<p>卯 39년생 혼란스럽겠다. 51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에서 애매하리라. 63년생 하늘의 도움이 있겠으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75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87년생 부단한 노력 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한다. 행운의 숫자 : 62, 03</p>	<p>酉 45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 할 것이다. 57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69년생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파멸을 부를 뿐이다. 81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기법이 요구 된다. 93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16</p>
<p>辰 40년생 해냈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52년생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64년생 가만히 뒹굴면 뒹굴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 버리게 생겼다. 76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88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46</p>	<p>戌 34년생 실질을 숭상하는 것이 순리적인 국면을 조성한다. 46년생 우회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70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82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니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98, 59</p>
<p>巳 41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고려함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가까운 곳부터 손질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77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던 대상이다. 89년생 개털에 베풀기듯 하겠다. 행운의 숫자 : 79, 15</p>	<p>亥 35년생 이제는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47년생 평상시 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59년생 날마다 조금씩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71년생 이행이 완벽해야만 한다. 83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20, 82</p>